

예배는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 스티븐 프라이(Steven Fry)/ 선교동원가

흥분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감돌고 있었다. 한껏 멋을 낸 정장 차림의 청중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 소리가 음악회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현장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매우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클래식 음악가들이 한 사람씩 무대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각자 자신의 악기를 점검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다. 나는 이마를 찌푸렸다. 그것은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기보다는 아침 출근길의 시끄러운 소음에 더 가까웠다.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백 개의 악기들의 조율하는 소리로 듣기 괴로운 불협화음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단원들은 각기 나머지 단원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듣기 좋을 리가 없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상)이 좋은 이유

그 이후에야 지휘자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단원들은 숨 멎은 듯 조용히 했다. 그가 지휘봉을 들어 올리자 청중들 위에 커다란 침묵이 찾아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휘봉 끝에 정지하고 있는 듯했다. 그가 시작 신호를 보내자 하모니를 이룬 웅장한 음악이 폭포수처럼 강당을 가득 메웠다. 단원들은 이제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오케스트라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혼자서는 도무지 창조할 수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포니를 이루라고 요구하셨다는 것을 알면 놀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19-20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합심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쉼포네(sumphone)로 이 단어에서 영어의 심포니(symphony)라는 단어가 유래한다. 우리가 삶과 사역 속에서-그리고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합심하고 마음을 같이할 때 하나로 모아진 결과는 심포니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화음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각 삶의 독특한 ‘악보’는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와 협응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문화는 ‘솔로 예술가’를 선호하는 편이다. 독립심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가치 중 하나이며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우리가 자기 의존에 비싼 권리금을 매기기 때문에 공동체의 많은 측면들이 피상적으로 되어 간다. 이는 예배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과 한 장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말의 많은 행사 중의 하나로 변질될 수 있다.

미친 듯이 돌아가는 현대 생활의 리듬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영혼의 자원을 공급받고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공동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연료를 다시 공급받는 주유소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정

말로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함께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교회당에서 우리의 친구들과 찬송가를 부르거나 합창을 하는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위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그분에게 그러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예배는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를 이룬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와 그러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경의 첫 다섯 권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드러내셨다는 확신이 든다. 하나님은 손수 예배의 모든 요소들과 순서를 규정해 주셨다. 성막(그리고 후의 성전)의 건축에서부터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하셨다.

이제 막 국가로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원하는 어디서나 희생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실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다(신 12장).

결과적으로 그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확인됐고 전민족이 일년에 세 번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예배하라는 명령을 지시받았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의 예배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는 축제였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혼자 예배한다는 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낯선 개념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그러한 예배는 반역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완악함의 결과일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 전민족적으로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그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생각과 관습에 의해 자주 영향을 받았다.

그들이 우상숭배의 길을 택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자기 백성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그들이 민족 공동체로서 자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다(호 2:2-23, 요엘 2:12-13, 암 4-5장, 눅 13:34).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생각해 보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예배는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위해 여러 날 동안 여행해야 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예배한다는 목적 하나를 위해 그러한 희생을 요구하시면서도 전혀 무신경하신 분처럼 보인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배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의 측면에서 세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은 일종의 공동체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위 중 한 분이더라도 독자적으로 다른 위격과 관계를 단절하시고 존재하신 적은 영원을 통틀어 단 한 순간도 없었다. 이 진리가 함축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자기 의존이라는 미국적인 이상은 허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혼자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혼자서는 불안정한 존재로 지으셨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 속에서 그와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계획된 존재다(고전 12장, 엡 4:1-16).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루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해야만 하나님의 관계적 성격, 즉 공동체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혼자 하는 예배의 순간이 아무리 황홀하고 흥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도들과 함께 그의 존전에 있는 예배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실 때 가슴속에 출렁이는 거룩한 기쁨에 대해 잘 포착하고 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 . .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 . .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4, 17).

자기 백성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면 그들 가운데 춤을 추며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해 보라! 스바냐가 바로 그렇게 즐거운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확실히 함께 하나로 모인 자기 백성들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신다.

이 책의 마지막 절은 이 생각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스바냐는 자기 백성들, 특별히 정치적 압제와 추방, 혹은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 서로 고립되고 분리되어 있던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는 언약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 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 . . 내가 그 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습 3:19-20).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즉 자기와 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정(home)’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일 뿐이다(벧전 2:11).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찬양하고 기쁨으로 소리치며 즐거워할 때(습 3:14) 우리는 우리의 천국의 가정에서 살게 될 삶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그곳에서 그를 수천 년 동안 예배해 온 모든 족속과 민족들과 국가들이 하나가 되어 예배하게 될 것이다(계 7:9-17). 혼자서 하는 예배는 미래에 되어질 이러한 일에 대한 전망을 제공할 수 없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의 유익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예배는 우리의 믿음에 자양분을 공급하고 지탱시켜 준다. 구약에서 집단적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공통된 정체성을 인정하고 기리는 규칙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였고 그들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자리였다.

공동체적 예배는 우리의 믿음도 윤택하게 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데 있어 공동체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10장에서 독자들에게 자아도취적 영성에 말려들지 말라고 권면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25절).

이것은 교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로서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이 명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절의 문맥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구절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용서에 대한 4가지 구체적인 반응 중 마지막 반응이다. “. .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 . .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잡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 . . 하지 말자”(히 10:22-25).

하나님께 함께 반응하자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 유의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진력하고 인내하며 우리의 소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를 꾸준히 추구하리라는 소망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 행하시는 믿음의 유지라는 사역을 우리 스스로 멀리하고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동체적 예배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성경은 주님이 그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다고 말한다(시 22:3).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임재가 감지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하나로 모인 곳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예배 자체가 주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이 진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나는 우리의 공동체적 예배가 우리의 열정이나 간절함의 강도를 통해 하나님을 소환하는 행위로 설명하기보다는 그의 임재에 대한 즐거운 반응이라고 서술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예배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여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그분에게 하는 반응이다.

다윗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험하는 기쁨을 이해한 사람이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시 122:1). 나는 이 예배의 ‘심포니’ 속에서 그의 임재의 영광을 독특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주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교제가 아무리 달콤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그를 예배할 때 경험하는 그의 속성과 사랑은 새롭고 독특한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공동체적 예배는 그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에 자원을 공급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도록 만드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엡 1:12). 우리의 존재 이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는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이 그를 점점 더 온전히 반영해 가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행 1:8) 그가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사명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과정들을 확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그들이 성령과 정면으로 만나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었다. 성령과의 만남이 사역의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임하시는 성령과 만남으로써 증인이 되라는 대위임 명령이 불붙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행 4:23-31). 그러한 시간들은 사역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갱신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된다.

나는 수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살면서 여러 복음주의적 전도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

렸다. 열정적인 젊은 제자였던 내가 어느 날 아침 도심으로 차를 몰고 가 유니온 광장에 자리를 잡고 용기를 짜내고 목소리를 최대한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기억난다. 그 모든 과정에 누구도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그 일을 했다. 대담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효과적이지 못했다. 그 일로 인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소심함과 외로움만 더욱 심화되어 버린 시도였다.

몇 년 후 유니온 광장에서 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아니라 700명이나 되는 성도들과 함께였다! 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진행된 복음전도에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 서로 하나되어 드리는 예배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연합의식이 새롭게 불타오르도록 해주었다.

우리의 문화는 고독한 방랑자(lone ranger)의 이상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오히려 우리가 함께 그를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격려와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성과 그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의 쇄신이다. 물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진 순례자들과 함께 여행할 때 느끼는 유쾌한 동지 의식은 당연히 덩으로 온다.

* 스티븐 프라이/ 미국 테네시주 브렌트우드에 있으며, 찬송작사가이자 선교동원가로서 I AM: The Unveiling of God and Rekindled Flame와 The Passionate Pursuit of God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1월호 272-277페이지에 실린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다(<http://durano.com/moksin>).